

복잡다단한 ‘기억의 파편’ 모아 추억담긴 풍경화 수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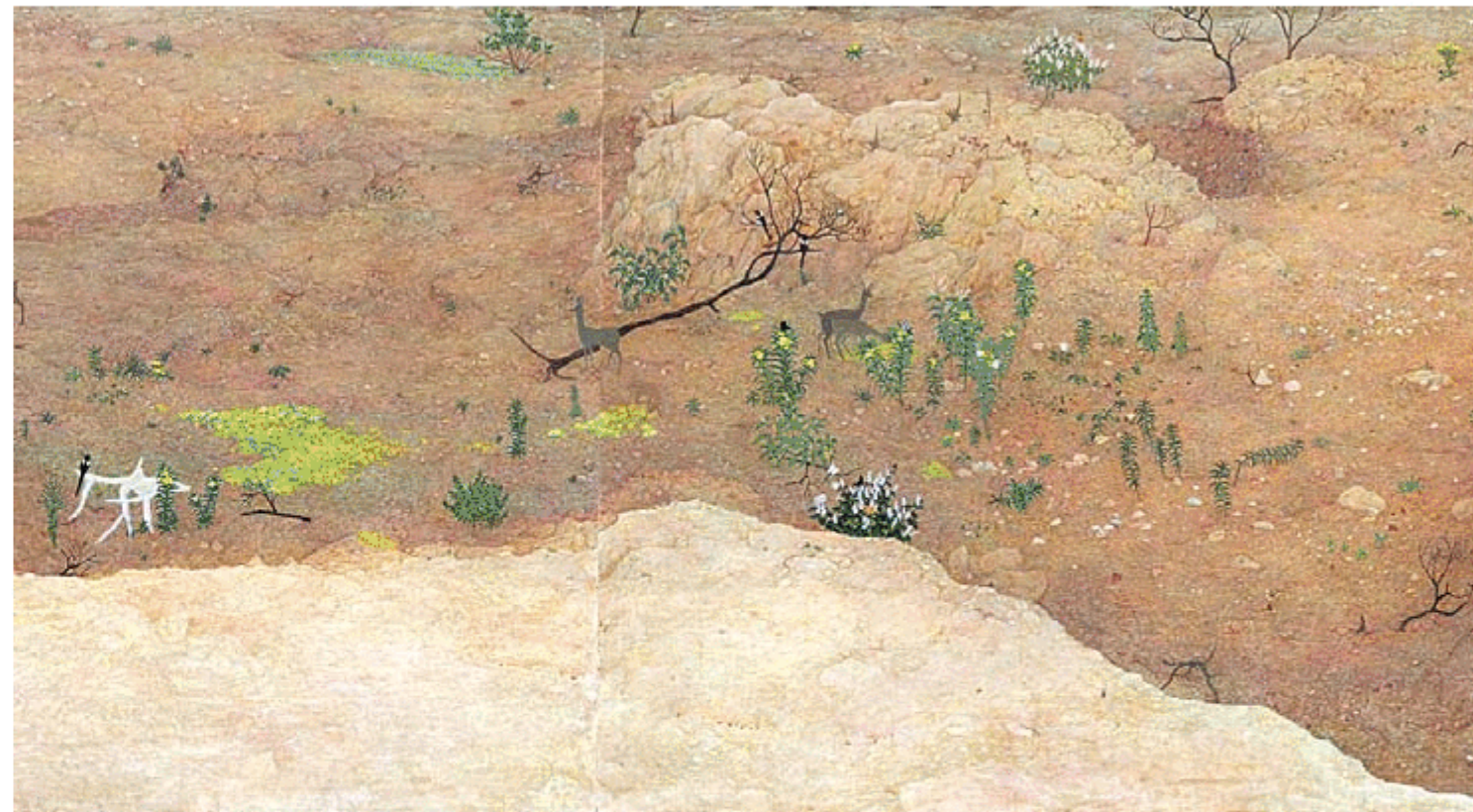
문성식 개인전

2005년 스물 다섯 살의 나이에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에 최연소 작가로 참여하면서 주목받았던 문성식(31). 그의 작품을 보면 이성복 시인의 시가 생각난다. 쓰면서도 고소한 맛이 그렇다는 얘기가.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숲으로 사냥 갔던 기억들이 화면에 펼쳐지고 있다. 부부새를 겨냥한 총구는 어린 작가에게도 불편한 진실이었다. 울무에 걸린 고라니의 절규도 있다. 죽음 등 냉혹한 현실이 난무해도 숲은 무심하기 그지없다. 인간사 온갖 일에 자연의 섭리가 무심한 것 처럼. 그러기에 종국엔 ‘아귀다툼’이 정화되는 짜릿한 이치를

깨닫는다.

개발로 뒤집어 놓은 서울 근교 땅도 화폭이 됐다. “저는 도시와 자연의 접점에 있는 서울 근교의 풍경처럼 약간 불편한 느낌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불편해져서 오히려 리얼리티가 극명해지는 순간,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풍경 같은 것들이요. 그 위에 자연의 섭리는 일어나고 야릇한 그곳의 공기가 저를 이끌지요.” 일종의 흠그림이라 할 수 있다. “땅이 너무 회화적이기에 흥내를 내고 있습니다. 아크릴을 수없이 덧칠해 진흙을 이겨 넣듯 작업을 하지요.”

그의 작업은 주로 어린 시절의 경험과 기억들, 그리고 주변에서 마주치는 풍경들에서 나온다. 전시작 중 화면을 온통 검은색으로 칠한



◇무심한 교차

‘밤의 질감’은 출퇴근길 마주쳤던 인왕산의 느낌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신당동에 있는 작업실로 출퇴근하기 위해 아침과 밤 시간대 인왕산을 지나다녔던 작가는 낮 동안 존재했던 모든 사물이 밤이 되면 완전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풍경에서 어둠의 존재에 대해 일종의

신비감을 느꼈다고 한다.

“어둠의 숭고함을 물질화하기 위해 제 노동력을 바쳤어요. 어둠은 너무나 거대한 존재라 알잡아보면 안될 것 같아 각오하고 시작한 작업입니다.” 4월7일까지 국제갤러리. (02)735-8449